

시편 70편 묵상 -

시인의 목숨을 찾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기뻐하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개역	사역
<p>다윗의 기념게 한 시, 영장으로 한 노래</p> <p>1 하나님이며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p> <p>2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와 무안을 당케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욕을 받게 하소서</p> <p>3 아하, 아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羞恥)를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p> <p>4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p> <p>5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며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우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p>	<p>지휘자에게, 다윗, 기념으로</p> <p>1 하나님, 속히¹⁾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호와 주님, 속히 저를 도와주십시오.</p> <p>2 저의 목숨을 찾는 자들, 그들로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악을 행하려는 자들, 그들로 뒤로 물러나 창피를 당하게 하소서.</p> <p>3 "아하, 아하" 하고 말하는 자들, 그들로 수치를 당하고²⁾ 돌아서게 해주십시오.</p> <p>4 주님을 찾는 사람은 모두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십시오.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p> <p>5 나는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이오니 하나님, 속히 나에게 오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과 구원자이시니 여호와 주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p>

시편에는 긴 시편도 있지만 짧은 시편도 함께 있습니다. 70편은 다섯 절로 된 짧은 시편이지만, 앞뒤에 나오는 두 시편, 곧 69편이나 71편은 각각 36절과 24절로 구성된 긴 시편입니다. 짧은 시편은 긴 시편들 사이에 있어서 소홀히 여기기 쉽지만, 짧은 시편에는 주요한 내용이 농축된 형태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긴급한 순간에는 짧은 말로 기도하게 됩니다. 70편에는 그러한 짧은 기도들이 나옵니다. 이 시편은 “속히 구원해 주십시오”(1절) 하는 말로 시작하고 “속히 나에게 오소서, 주님 지체하지 마소서”(5절) 하는 말로 마칩니다. 짧기 때문에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바로 호소하기에 적합한 시편입니다.

70편은 여러 면에서 69편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특히 수치와 보복에 관한 구절이 그렇습니다. 69편의 시인은 악인들에게 이유 없이 수치를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 그 수치를 갚아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69:6-7, 19). 70편의 시인도 2-3절에서 자기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69편의 시인은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69:29) 하고 기도하였는데 70편의 시인도 “나는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이오니 하나님 속히 나에게 오소서”(70:5) 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광대하시다”(69:30; 70:4) 하고 노래하는 점에서도 69편과 70편은 비슷합니다.

70편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시인의 목숨을 찾는 교만한 자들과 하나님을 찾는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은 다른 결과를 맞이합니다. 시인의 목숨을 찾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주님은 위대하다!’ 하고 찬송하는 데에 이를 것입니다. 이것을 공간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홀로 위대하시고 높이 계시고, 그 아래에는 하나님만 찾는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이

1) ‘후사’[어서, 속히]가 문장의 마지막에 나오는데 ‘라메드’로 시작하는 두 문장에 모두 걸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하였다(NIV, TNK; Tate, *Psalms* 51-100, 202).

2) 직역하면 ‘수치로 말미암아.’

있과 다른 사람의 목숨을 찾아가 뒤로 물러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분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려다가 실패하고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70편의 짧은 시편을 통하여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법도 배우고 동시에 악인의 숨은 동기가 무엇인지를 봅니다.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높이는 대신에 자기를 높이려는 것인데, 구원을 얻은 시인은 원수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가난한 자로 낮추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 시편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주님은 위대하다!' 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데에 이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1.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을 호소함 (1절)

- 1 하나님, 속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호와 주님, 속히 저를 **도와주십시오**.

70편은 '속히' 구원해 달라는 긴박한 요청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여호와 주님'을 이어서 부르는 것도 눈에 들어옵니다. 42-72편은 '하나님'[엘로힘]이라는 호칭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70편에서는 1절과 5절에서 '하나님'과 '여호와'가 함께 나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시인은 자기의 형편에 관하여 말하기보다는 그냥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고 호소합니다. 어떤 상황을 설명하면서 설득하려 하지 않고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간구합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면서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자기의 도움과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 나아오는 것입니다.

2. 시인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당할 수치 (2-3절)

- 2 저의 목숨을 **찾는** 자들,
그들로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악을 행하려는 자들,
그들로 뒤로 물러나 **창피**를 당하게 하소서.
3 "아하, 아하" 하고 말하는 자들,
그들로 **수치**를 당하고 돌아서게 해주십시오.

2-3절에는 원수의 행동을 세 가지로 말하고 그들의 그런 행동에서부터 각각 구원해달라고 호소하는 말이 나옵니다. 원수는 시인의 목숨을 찾고, 악을 행하려 하고, '아하, 아하' 하면서 승리를 자축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원수의 위협이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세 가지 행동을 조금 더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원수는 시인의 목숨을 '찾습니다.' 마치 맹수가 먹이의 숨통을 노리며 덤비듯이 악인은 시인의 목숨을 노리면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둘째, 원수는 시인에게 악을 행하려고 합니다. 악인이 시인의 목숨을 찾은 후에 그에게 어떠한 악행을 가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어떠한 종류의 해악을 행하려고 하는지는 밝히지 않지만 가련하고 가난한 시인을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셋째, '아하, 아하' 하면서 조롱의 말을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악행이 있었기 때문에 '아하, 아하' 하는 조롱의 말이 더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승리를 확신하고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아하'는 의성어인데 히브리어로는 '헤아흐'입니다. '헤아흐'라는 말은 승리를 자축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고서 암몬 족속이 "아해헤아히 좋다" 하고 말하였고(겔 25:3) 두로가 예루살렘을 칠 때에도 "아해헤아히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고 말하였습니다(겔 26:2. 참조. 겔 36:2).

‘아하’라는 말이 승리를 확신하고서 웃는 웃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 시인의 절박함이 더 다가옵니다. 맹수가 먹이의 목을 물어서 넘어뜨리고 발로 짓밟고 해악을 끼치려고 하면서 ‘아하, 아하’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배가 고파서 먹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먹잇감을 조롱하는 데에서 만족을 누립니다. 악을 그 자체로 즐기는 것입니다.

악인의 세 가지 행동과 함께 세 가지 간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서는 ‘간구’가 악인의 행동보다 앞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들로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저의 목숨을 찾는 자들” 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간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뒤에 나오는 방식으로 말하는 데에서 시인의 간절한 소원이 더 절박하게 느껴집니다.

원수의 행위에 대하여 시인이 호소하는 말도 세 가지입니다.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하소서’ ‘뒤로 물러나 창피를 당하게 하소서’ ‘수치를 당하고 돌아가게 하소서’ 하고 세 가지로 호소하였습니다. 첫째, 2절 상반절에서 “저의 목숨을 찾는 자들, 그들로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시인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로 끝나고 그들이 공적으로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둘째, 2절 하반절에서 “저에게 악을 행하려는 자들, 그들로 뒤로 물러나 창피를 당하게 하소서” 하고 구하였습니다. 악을 계획하였을 뿐 아니라 행하려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뒤로 물러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셋째, 3절에서 “아하, 아하 하고 말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돌아가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먹잇감을 놓고 ‘아하, 아하’ 하고 조롱하고 있는 원수가 ‘수치를 당하고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호소합니다. 원수가 시인을 마음껏 조롱한 다음에 이 세상에서 흔적도 남기지 않고 없애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가 갑자기 수치를 당하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시인을 삼키려던 그의 의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을 ‘수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입맛을 다시면서 기세등등 하게 접근하였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다면 크게 수치스러울 것입니다.

수치와 조롱이 원수에게 임하는 것이 2-3절의 핵심인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수치는 어떤 개인이 마음으로 느끼는 수치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계획이 좌절되고 그들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인이 자기의 꾀로 사람들을 선동하여 시인을 공격하였으나 그들은 자기의 꾀를 이루었다고 자축하는 그 자리에서 수치를 당하고 뒤로 물러나게 되었으며 뒤로 물러나서도 더 큰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시인을 없애려던 그들이 오히려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악인에게 수치가 임하는 이 부분에서 주목할 점은 시인이 악인에게 수치를 입히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시인은 원수에게 수치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듣고 그를 구원하고 악인은 수치스럽게 만들어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악인이 자기에게 주려던 수치를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되돌려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2-3절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수치를 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신이 수치를 당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은 69편에서 다룬 주제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성전을 위한 열심을 품고 주님께 나아왔으나 악인들에 의하여 이유도 없이 큰 수치와 조롱을 당하였습니다(69:6-10). 시인은 “주께서 나의 꾀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69:19) 하고 호소하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진노를 쏟으시기를 구하였습니다(69:22-28). 원수에 대한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임하기를 구한 것입니다. 69편과 70편에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을 ‘수치’의 이미지로 표현하였습니다. 원수가 시인에게 수치를 입히려고 하였는데 그 수치를 원수가 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3. 주님을 찾는 자들의 찬송과 가난한 자들의 기도

1) 주님을 찾는 자들의 찬송 (4절)

4 주님을 찾는 사람은 모두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십시오.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시인은 원수의 특징으로 '자기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라고 하였는데 '주님을 찾는 사람'을 그와 대비되는 사람으로 제시합니다. 그는 "'주님을 찾는 사람'은 모두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십시오" 하고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는 사람'은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더 설명합니다. 원수는 자기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찾지만, 주님을 찾는 사람은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대비시킵니다. 70편에서는 이렇게 자기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찾는 사람과 여호와를 찾는 사람 곧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크게 대비합니다.

4절에서도 먼저 두 가지 주어를 살피고 이어서 두 가지 기도의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 모두'와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을 붙여서 말합니다. 두 말이 병행 구절을 이루면서 말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 구절에서 '주님을 찾는다'는 말은 '주님의 구원을 사랑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주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주님께에서만 구원을 찾고 그것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원수들이 자기들의 꾀로 시인을 수치스럽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만을 찾는 시인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만을 구하고 그 구원을 사랑하는 태도를 지닙니다. 주님을 찾다가 응답이 없으면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까지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이처럼 끝까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님을 찾거나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합니다.³⁾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찬송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찬송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추구한 사람은 어려움에서 벗어났을 때에 자기를 높이려고 하겠으나 큰 곤경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찾은 사람은 구원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은 위대하다!' 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꾀를 이루어서 '아하, 아하' 하고 조롱하면서 자기의 승리를 자축하려던 원수들은 그 자리에서 수치를 당하여 돌아서고 뒤로 물러선 후에도 수치를 당하여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먹이를 내려다보면서 조롱하던 자가 사라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찬송합니다. 원수는 진토 위에서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는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수치스럽게 된 원수를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2)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의 기도 (5절)

5 나는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이오니
하나님, 속히 나에게 오십시오.

3) 2-3절에서 주어가 동사 뒤에 나온다고 하였는데 4절의 두 문장도 같은 형식이다.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십시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동사의 내용을 강조하려고 일관되게 도치법을 사용하고 있다.

주님은 나의 **도움**과 **구원자**이시니
여호와 주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4절에서는 주님을 찾는 사람은 주님이 위대하다고 찬송한다고 하였는데 5절에서는 주님을 찾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경건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시인은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으로 고백하는 자’가 ‘주님을 찾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가련하고 가난한 자임을 고백하는 시인은 ‘여호와’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속히 나에게 오소서” 하고 호소합니다. 자기의 가난함을 아는 이 시인은 ‘속히’ 오시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5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4절의 구원과 찬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봅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5절의 말씀처럼 “나는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이오니 하나님, 속히 나에게 오소서” 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자기를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속히 오시라고 기도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조금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돌아다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난하고 가련한 처지를 인정하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속히 오시기를 간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분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편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도움과 구원자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호와 주님, 지체하지 마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십니다. 1절에서도 “하나님, 속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면서 시작하였는데 마지막 절에서도 같은 간구로 마칩니다. 이러한 간구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특성이라고 하면서 위급한 순간에도 이러한 기도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4. 진정한 수치와 기쁨

1) 두 부류의 사람

70편은 ‘찾는다’라는 말로 두 가지 인간을 대비시킵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찾는 사람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대조합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찾는 사람은 ‘아하, 아하’ 하면서 승리를 자축하는 그 자리에서 큰 수치를 당하고 뒤돌아서게 되고, 물러나서도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맛보고서 주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악인은 낮아졌으나 시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시인은 “나는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이오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춥니다. 조금이라도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 대한 원망도 없이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가난한 사람으로 고백합니다(참조. 시 69:29).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맛볼 것입니다. 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받는 복, 곧 천국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마 5:3).

시편에서 ‘위대하다’는 말을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두 군대를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아하 소원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로 부끄러워 낭패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자긍하는 자로** 수치와 욕을 당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행동을 기뻐하시는 여호와와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시 35:25-27)

시편 35편은 70편과 비슷한 표현이 여럿 나옵니다. “아하” 하고 승리를 자축하는 말이나 “수치와 부끄러움, 욕”을 언급하는 것, 그리고 “크다, 위대하다, 광대하다” 하고 말하는 것이 대비됩니다. 26절에서 “나를 향하여 자궁하는 자”라는 말은 “나보다 높다고 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내가 너보다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참조 시 38:16).

다른 사람보다 크다는 것은 가까운 사람에게서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과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55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류(同類),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시 55:12-13)

시인을 책망하거나 ‘시인에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원수가 아니고 미워하는 자도 아니라고 합니다. 가까이 지냈던 친구가 자기 자신의 높음을 확인하려고 자기를 책망한다고 말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자기의 높음을 확인하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성된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서로 싸우고 먼저 나오려고 한 것을 보면 사람으로서는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음을 봅니다.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는 것이 있고 그 위에 군림하려는 것도 있고, 마지막 말을 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을 강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찾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으로도 자기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2) 예수님의 수치

70편의 시인은 악인이 그의 생명을 찾아 악을 행하려 하고 ‘아하’ 하면서 승리를 자축하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호소하였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와 비슷한 광경을 봅니다. 예수님의 원수들이 그분의 영혼을 찾았고 그의 영혼에 악을 행하였고, 십자가에 달린 분을 보고서 ‘아하’ 하면서 조롱의 노래를 하였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막 15:29) 하는 모습은 70편의 내용과 같은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순간에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써 그 원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성전을 향한 열심을 품고 수치를 당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70편을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부요하신 분이셨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고후 8:9). 것처럼 부요하신 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도 자기 자신을 가난한 자로 생각하고서 이 시편을 불러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가치 있고 부요한 사람으로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셨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그런 자세를 버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이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시편을 자기의 시편으로 부르기가 힘듭니다. 이 점에서는 부요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복된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3) 기념의 시편

70편은 ‘기념’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기념’이라는 말 때문에 어떤 절기나 국가적인 행사 때에 부르는 시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높이는 경향이 있으나 70편의 결론 부분은 “나는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이오니 하나님, 속히 나에게 오소서” 하는 말로 끝납니다. 사람을 낮추고 주님의 도움과 구원만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기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기념’이라는 말이 사용된 더 좋은 예는 ‘기념의 소제’입니다. 제사장은 소제물 중에서 일부를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레 2:2, 9). 이러한 소제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70편을 불렀습니다. 고운 기름과 기름으로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소제는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한 소제를 드릴 때에 70편을 불렀습니다. “나는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이오니 하나님, 속히 나에게 오소서” 하는 심정으로 자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가난한 심정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에게 속히 오실 것입니다. 소제를 드리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그의 생활 전반에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에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와 위대한 분이시고 자기 백성의 생활을 돌보는 분이시며, 원수의 압제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맛보고 그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⁴⁾

(성은교회, 2009년 1월 18일)

4) 시편 70편은 시편 40:13-17과 거의 같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서는, 70편은 40편 후반부와 같다고 말하고 그냥 지나가기도 한다. 그런데 40편 후반부와 70편이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40:17에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며 지체하지 마소서” 하고 끝난다.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라는 말이 70편에는 나오지 않지만 40:17에는 나온다. ‘생각’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하는 40:5와 연결된다. 40편의 맥락에서 ‘주님의 생각’은 주님께서 번제나 속죄제를 원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 구절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적용하였다. 예수님께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의 길로 가셨고 십자가로써 단번에 제사를 드린 것을 말한다. ‘주의 생각’이라는 40:17은 40:13-17을 40편의 앞부분과 연결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과 연결시킨다.

70편은 40편의 후반부와 비슷하지만, 70편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 악인들의 모습을 생생히 그리면서 그들은 수치스럽게 되고 자신을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간절한 말로 호소하는 시편이다. 어느 경우는 40편처럼 자세히 간구할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70편처럼 간단한 형식으로 주님께 호소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의 다양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긴 시편과 짧은 시편을 모두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께 우리의 가난함을 호소하면서 나아오게 하신 것이다.

40편과 70편의 비슷한 점을 간략히 생각해 보았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하나 더 있다. 40편은 제1권(1-41편)의 마지막 부분이고, 70편은 제2권(42-72편)의 마지막 부분에 속한다. 40편과 70편은 모두 1권과 2권의 결론 부분에 속하면서 ‘하나님께서 속히 도우시기를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시편을 부르면 부를수록 더욱 하나님께서 속히 도우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들어야 함을 알려 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간다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더 풍성히 알아가는 것이고, 말씀을 잘 아는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님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